

오늘의 대학생, 어떤 책을 읽나

독서경험의 체계적 전승... 사회과학으로의 환원주의 우려돼

대학생 독서성향을 가장 특징적으로 대표하는 현상으로서 흔히 '의식화도서'로 지칭되던 일련의 사회과학도서가 필독도서로 권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상식에 속한다. 70년대에 대학을 다닌 30대의 성인들이 당시로서는 '불온한' 도서들을 은밀하게 돌려읽던, 그래서 그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해, 이제 보다 공개적이고 광범한 형태로 그 같은 독서성향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각종 서클이나 학과, 혹은 총학생회 단위 등으로 작성된 필독도서목록의 다양한 존재가 그 좋은 예가 된다. 목록의 체제나 구성에서도 20권 안팎의 책 제목만을 나열한 극히 소략한 수준의 것이 있는가 하면, 수백권의 도서에 일일이 해제를 붙이고 그것들을 독서의 목적과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재편성한 정밀하고 방대한 체계를 갖춘 목록들도 눈에 띄고 있다. 그만큼 이들 도서의 독서저변이 넓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독서지침이라기보다는 학습프로그램

대학생 필독도서는 대개 일종의 학습프로그램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그저 단순한 독서지침으로보다는 선후배간에 이루어지는 독서경험의 체계적 전승이라는 특징을 짚게 드러낸다"는 것이 K대 신문사 편집장 김모군의 말이다. 그런 만큼 독서의 목적도 거의 선언적이라 할 정도로 뚜렷한 명제로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같은 대학 국문과의 「88 학회커리큘럼」에 보이는 "관제교육에 의해 고정, 왜곡된 시각을 교정하고 비판적 안목을 넓히기 위한"이란 표현이라든지, Y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의 "현실인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과학적이고 합법칙적인 행동의 지침을 줄 것인가는 요구에 대한 안내서" 같은 표현에서 목록대로의 독서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 목적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학생 필독도서목록 중 가장 짜임새있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교양독서목록」(세계, 1986)의 정리를 따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가 대학생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둘째가 역사와 사회에 대한 보다 심화된 과학적 인식들의 확보, 그리고 세째는

'의식화도서'로 지칭되던

일련의 사회과학도서로 구성된

대학생 필독도서는 대개 선후배간의

독서경험 전승로 체계화돼,

단순한 독서지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학습프로그램으로 존재한다.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구조적 모순의 인식 및 그 개선의 실천방략 모색이다. 둘째와 세째 단계로의 진입은 각각 첫째와 둘째 단계에서의 독서를 디딤돌로 삼는다.

물론 이같은 단계들이 언제나 순차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의 필독도서목록을 공유하는 각각의 소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단계는 혼용되거나 분화되기도 하고, 특정분야에 특별한 무게중심이 놓이기도 한다. 가령, 여자대학의 경우 性모순과 인간해방을 주제로 여성문제의 인식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고 있는 예가 많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세 단계의 線條的 진행은 일종의 정석이나 모델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그것은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 독서라기보다는 학습에 가깝다. S대 경제학과 조교 남모씨는 그런 점에서 대학생 독서성향은 '지도된다'고 표현한다. 그에 따르면, 그 지도의 수순은 선배들에 의한 과제도서의 제시, 토론과 강평, 또다른 과제도서의 제시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선후배간 독서경험의 전승이라는 대학생 독서성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런 전승의 과정이 학생들끼리만 이루어질 뿐 교수의 참여나 영향력은 거의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일종의 '폐쇄회로'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기도 하다.

현실의 눈뜸 매개체

실제로 필독도서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학생 독서성향에는 좋게는 집약적인 것, 나쁘게는 편향적인 것으로 번역될 만한, 상당히 폐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필독도서의 독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주어진 목록' 아래 '일정한 방향'으로 '지도'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그것은 흔히 서클



사회과학도서로 대표되는 대학생 독서실태는 현실의 눈뜸이란 측면과 자칫 '편식'에 치우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부정의 양면의 평가를 받고 있다.(사진은 서울 K대 캠퍼스)

이나 학회 같은 소그룹 단위로 유통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어떤 '동아리 의식'에 쉽게 젖어들게도 한다. 결국, 목록의 구성에서나 그것이 읽히는 방식에서 밖을 향해 활짝 열려 있지는 못한 셈이다.

열려 있더라도 기존의 틀을 허물지 않는 한에서만 열려 있는데, 가령 목록의 개방성과 포용성은 '일정한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한에서만 유연하고 신중적일 뿐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네오마르크스즘 계열 저술들에 대해 '비판적 독서'를 요구하고 있는 K대 신문사의 「수습기자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커리큘럼」은 그 좋은 실례가 된다. 편집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이론들은 서구의 고도자본주의 사회에 기반을 두고 태동한 것으로서 한국적 상황에 꼭 들어맞는 비판이론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독서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또한 관심을 끄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부정의 두 갈래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쪽은 대개 학생들 스스로의 입장이다. 즉,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른바 12년간의 주입식 교육으로 무장해제당한 비판의식과 정치감각을 일깨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 개선해야 될 모순들을 정리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필독도서는 궁극적인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필독도서를 통해 매개된 현실의 눈뜸이 그런 문제와 모순들의 해결을 위한 도덕적 실천을 자극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 도덕적 실천은 정치적 실천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인 쪽의 입장은, 그러나 대학생 필독도서의 의의를 전면적으로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대개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민주화운동의 아방가르드로서 갖는 정치적 위상에 이들 필독도서가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드러낸다. 즉, 필독도서의 지나친 정치지향성을 비판하는 입장인데, 대입제도 탓에 고등학교 때까지 폭넓은 인문적 교양을 쌓을 변변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대학생들의 필독도서에 제한된 '독서편식'은 자칫 사고의 경직성과 배타성을 드러내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인문적 교양 뒷받침 안된 '독서편식'

특히, 교수들의 경우 그런 부정적인 우려를 현실로 경험하는 일이 많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는 지주계급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소설일 수 없지 않겠느냐는 식의 질문에 가끔 맞닥뜨린다"고 털어놓는 J대 국문과의 모교수는 "최근의 대학 독서경향이 모든 문화현상의 사회과학으로의 환원주의를 조장하는 쪽으로 획일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대학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필독도서목록은 좀더 너그럽게 개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말하자면, 필독도서목록이 하나의 완결된 프로그램으로 체계있게 학습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목록 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돼 선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쪽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 대학생 필독도서에서 좌편향의 조짐을 읽어내려는 일부의 오해와 사시적 평가는 비로소 불식될 수 있다.

—강철주 기자